

‘학력 및 학벌 차별’, 가장 심각한 차별로 인식

한국 특유의 차별로 다른 차별에 비해 심각도 월등히 높아

◆ 한국여성정책연구원, 〈국격제고를 위한 차별없는 사회기반 구축〉 세미나 개최

-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우리나라 차별현황 조사결과와 유럽연합 국가의 차별현황을 비교분석한 ‘우리나라 차별실태와 과제’를 발표함¹⁾.
- 이번 연구는 기존 차별 및 새로운 유형의 차별을 개선하기 위한 사회기반 구축을 목적으로 함.
- 우리나라 국민의 차별에 대한 인식과 태도 현황 추이를 살피기 위해 2011년 만20세 이상(16개 광역시도) 남녀로 구성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생활체감정책단 94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와 2004년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「차별에 대한 국민의식 및 수용성 연구」에서 만20세 이상(전국) 남녀 2,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면접조사 결과와 비교분석함.
- 선진국의 차별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비교하기 위하여 최근 3회 실시된 유럽의 유로바로미터(Eurobarometer) 중 세 번째 조사인 2009년 유럽 차별 인식과 태도 분석 결과를 비교분석함.

1) 본 세미나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정책현안과제인 「국격 제고를 위한 차별없는 사회기반 구축」(과제 담당자: 김태홍 선임연구위원, 공동연구자: 박선영 연구위원, 안상수 연구위원, 김난주 전문연구위원)의 일환으로 진행되었음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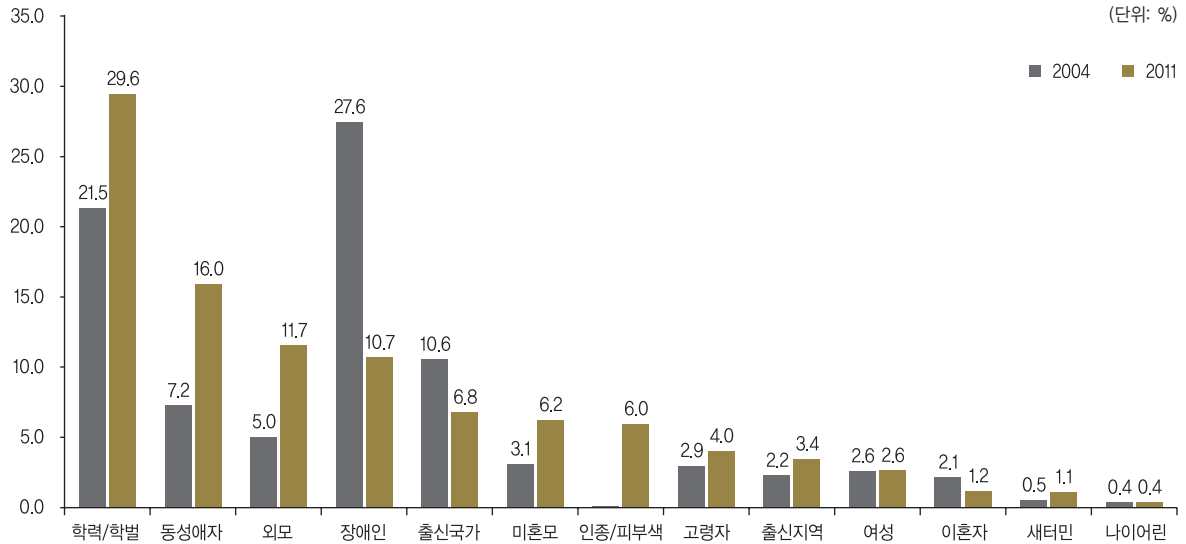
I. 우리나라와 유럽연합 국가의 차별 인식과 태도

이슈 #1

‘학력 및 학벌 차별’, 우리나라의 가장 심각한 차별

☞ 2011년 현재 가장 심각한 차별로 ‘학력 및 학벌 차별’ 꼽아

- 2011년 응답자의 29.6%가 ‘학력 및 학벌 차별’이 심각하다고 응답하여 2004년 21.5%에 비해 8.1%p 상승함.
- 뒤를 이은 동성애자 차별(15%), 외모차별(11.7%) 등과 비교하면 상당히 높은 심각도 인식을 나타냄.
- 2004년에는 장애인 차별(27.6%), 학력 및 학벌 차별(21.5%), 출신국가(10.6%) 순임.
- 2004년 외모차별 인식에서는 젊은 세대인 20대에서 외모차별이 민감하게 나타났으나 2011년에는 젊은 세대에 국한되지 않고 전 연령대에서 외모차별 심각도 인식이 높게 나타남.



[그림 1]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차별 유형의 연도별 비교

☞ 유럽연합(EU)과 비교시, 학력 및 학벌차별, 외모차별, 미혼모 차별 등은 우리나라 특유의 차별

- 2009년 유럽연합(EU)에서 가장 만연한 차별은 인종 및 민족차별(61%)임.
- 뒤를 이어 연령차별(58%), 장애차별(53%), 성적지향 차별(47%) 순으로 나타남.
- 2008년에 비해 연령차별(16%p)과 장애차별(8%p)에서 만연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증가함.
- 우리나라와 유럽 조사 결과를 비교하면, 한국의 학력 및 학벌차별, 외모차별, 미혼모 차별은 우리나라 특유의 차별임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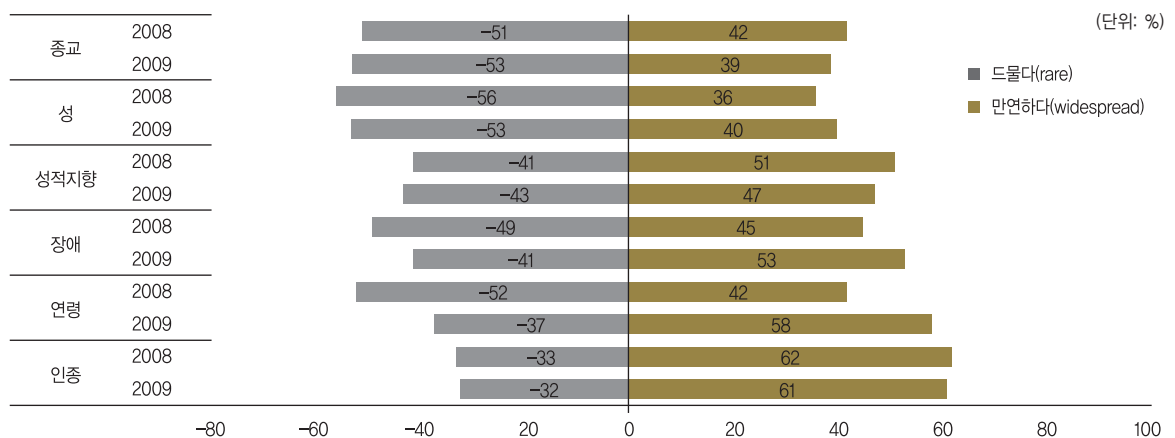
- 그러나 유럽에 만연한 인종 및 민족차별의 경우, 우리나라에서도 점차 심각해질 것으로 인식되고 있음.

이슈 #2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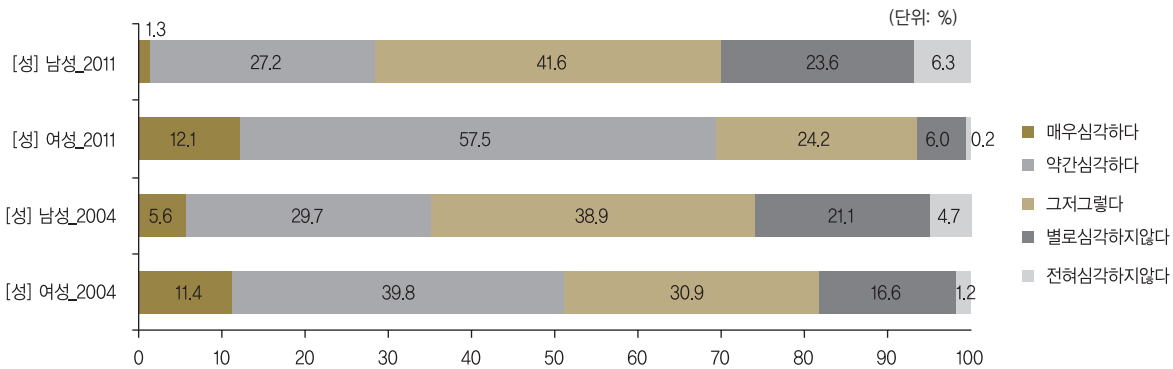
성차별 심각도 인식, 2004년에 비해 증가

☞ 2011년 한국의 성차별 심각도 인식, 2004년 대비 8.2%p 상승

- 성차별이 심각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은 2004년 43.7%에서 2011년 51.9%로 증가함.
- 성별에 따라서는 여성(69.6%)이 남성(28.5%)보다 더 심각하게 인식함.



[그림 2] 유럽인의 차별에 대한 인식 - 차별유형별



[그림 3] 성별에 따른 성차별에 대한 심각도(2004년, 2011년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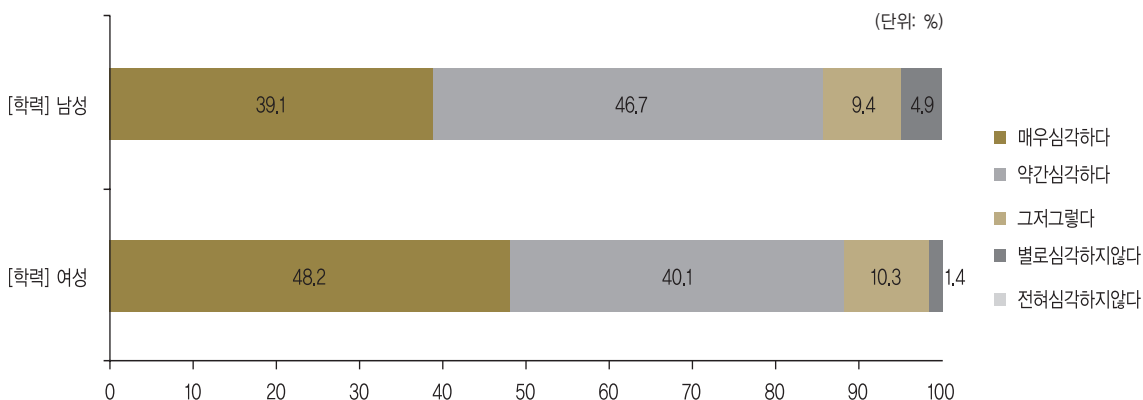
- 유럽조사와 비교시, 우리나라가 유럽(40%)보다 성차별을 더 심각하게 인식함.
- 2009년 유럽조사에서 성차별은 응답자의 40%가 만연하다고 답해 응답자 비율이 낮은 차별 중 하나임.
- 남녀 간의 성차별에 대한 인식은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여성(44%)이 남성(37%)에 비해 더 심각하다고 인식함.
- 학력 및 학벌 차별에 대한 심각도 인식은 2004년 80.6%에서 2011년 87.2%로 증가하여 가장 심각한 차별로 꼽힘.
- 성별에 따라서는 여성이 88.3%로 남성 85.8% 보다 더 심각하게 인식하였으나 남녀 모두 높은 비율을 나타냄.
- 실제 우리 사회의 심각한 학력차별은 과도한 고등교육열의 형성, 학력간 지나친 임금격차 유발, 과잉교육, 고학력실업 등의 다양한 사회문제를 발생시킴.

이슈 #3

학력 및 학벌 차별, 다른 차별유형에 비해 높은 심각도

☞ 학력 및 학벌 차별, 2011년 우리나라의 가장 심각한 차별 1위

-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2010년에 '학력규제 개선 기본방안'을 마련하고 시행하고 있음.
- 유럽조사 결과와 비교시, 학력 및 학벌 차별은 한국 특유의 차별로 나타남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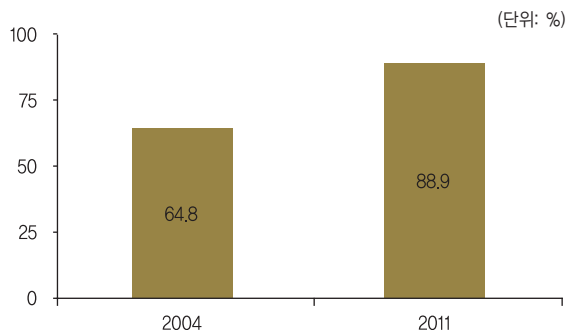
[그림 4] 2011년 성별에 따른 학력 및 학벌차별에 대한 심각도

이슈 #4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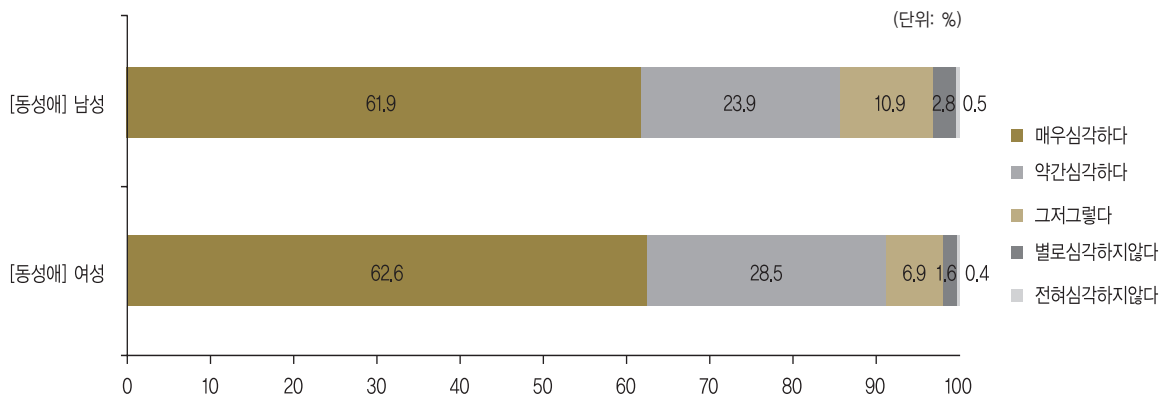
동성애차별, 2004년 대비 심각도 인식 급증

동성애차별 심각도 인식, 2004년 대비 24.1%p 증가

- 동성애차별 심각도 인식은 2004년 64.8%에서 2011년 88.9%로 급증함.
- 성별에 따라서는 여성이 91.1%로 남성 85.8% 보다 더 심각하게 인식함.
- 유럽연합(EU)에서는 우리나라와 다르게 2008년 51%에서 2009년 47%로 4%p 낮아짐.
- 또한 성적 소수자들을 알고, 자기 스스로 소수집단에 속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차별이 만연하다고 인식함.



[그림 5] 동성애차별에 대한 심각도 인식(2004, 2011년)



[그림 6] 2011년 성별에 따른 동성애차별에 대한 심각도

〈표 1〉 성적 소수자 친구 유무 및 자기인식 소수집단의 동성애 차별에 대한 인식 (단위: 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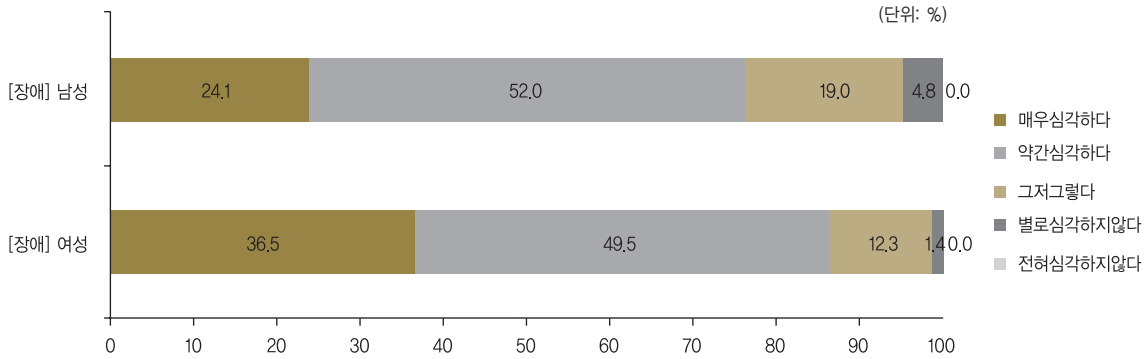
| 성적지향으로 인한 차별 | 전체 | 성적지향을 가진 친구 유무 | | 자기인식 소수집단 |
|--------------|----|----------------|----|-----------|
| | | 있다 | 없다 | 성적지향 |
| 만연하다 | 47 | 53 | 44 | 57 |

이슈 #5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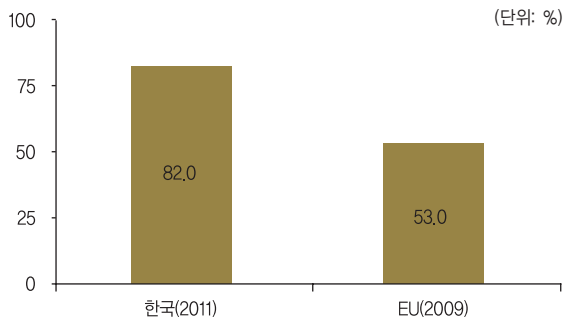
장애인차별, 유럽에 비해 심각도 월등히 높아

장애인차별, 2004년 대비 변화 없으나 유럽에 비해 심각도 높아

- 장애인차별은 2011년 82%로 2004년 82.2%와 비슷한 수준으로 심각도 인식이 나타남.
-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, 남성 76.1%, 여성 86.3%로 여성이 더 심각하다고 인식함.
- 53%인 2009년 유럽연합(EU) 조사 결과와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장애인차별 심각도는 상당히 높은 상태임.
- 장애를 가진 친구가 있거나, 본인을 장애 소수집단으로 인식하는 사람일수록 장애차별이 만연하다고 응답함.



[그림 7] 2011년 성별에 따른 장애인 차별에 대한 심각도



[그림 8] 장애인차별 대한 심각도 인식(한국, EU)

<표 2> 장애인 친구 유무 및 자기인식 소수집단의 장애차별에

| 장애로 인한 차별 | 전체 | 장애를 가진 친구 유무 | | 자기인식 소수집단 장애 |
|-----------|----|--------------|----|--------------|
| | | 있다 | 없다 | |
| 만연하다 | 53 | 56 | 50 | 69 |

이슈 #6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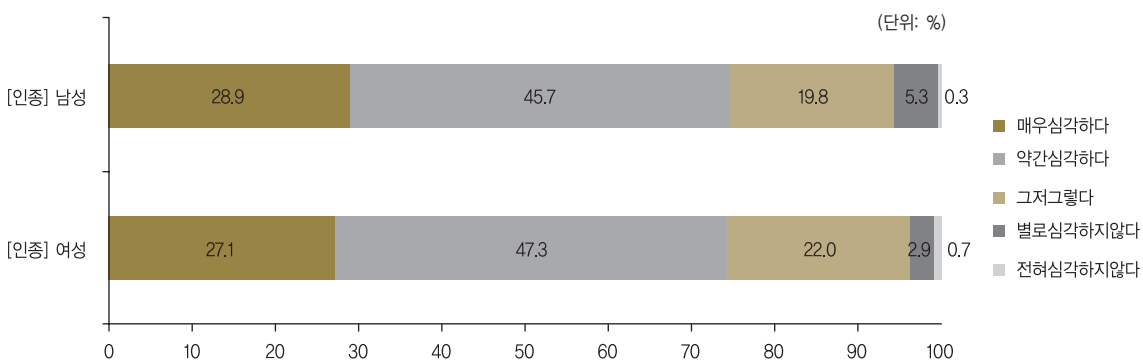
인종차별, 점차 심각해질 수 있는 차별

인종차별, 유럽에서 가장 만연한 차별로 우리나라 역시 피할 수 없어

- 2011년 응답자의 74.4%가 '인종 및 피부색에 의한 차별'이 심각하다고 응답함.
- 남성 74.6%, 여성 74.4%의 비슷한 수준으로 인종 차별을 심각하게 인식함.
- 2009년 유럽연합(EU)에 따르면 인종차별은 유럽인들이 가장 만연하다고 생각하는 차별(61%)임.
- 인종이 다른 친구를 두거나 본인을 인종 소수집단이라고 인식하는 사람일수록 차별이 더욱 만연하다고 응답함.

<표 3> 다른 인종 친구 유무 및 자기인식 소수집단의 인종차별에

| | 합계 | 인종이 다른 친구 유무 | | 자기인식 소수집단 인종측면 |
|------|----|--------------|----|----------------|
| | | 있다 | 없다 | |
| 만연하다 | 61 | 67 | 54 | 65 |



[그림 9] 2011년 성별에 따른 인종차별에 대한 심각도

이슈 #7

연령차별, 고령자에 대한 차별 특히 심해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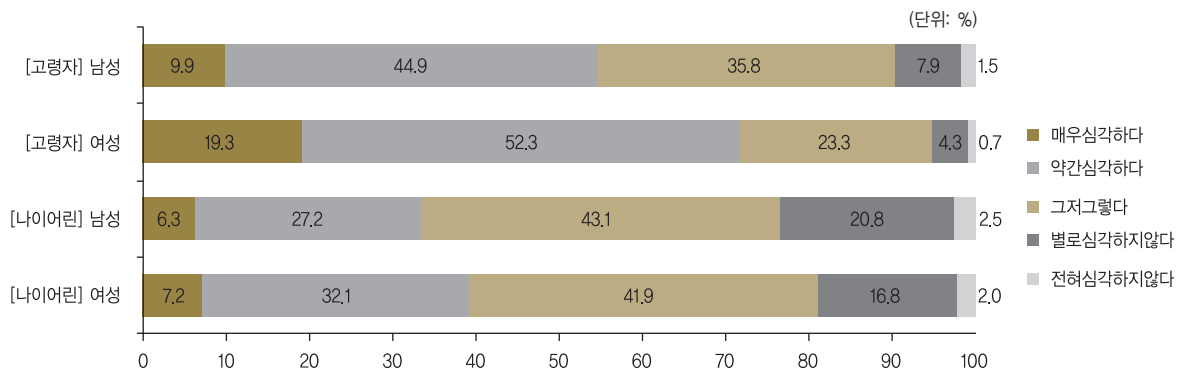
☞ 고령자차별, 2004년에 비해 15.1%p 상승

- 고령자 연령차별은 2011년 응답자의 64.7%가 심각하다고 인식하여 2004년 49.6%만이 심각하다고 응답한 비율과 비교해 고령자차별이 심각해진 것으로 나타남.
- 성별로 보면, 남성 54.8%, 여성 71.6%로 고령자차별이 심각하다고 인식하는 여성의 비율이 높음.
- 2011년 나이 어린 사람에 대한 차별의 심각도는 응답자의 37% 수준임.
-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, 남성 33.5%, 여성 39.3%가 나이 어린 사람에 대한 차별이 심각하다고 응답함.
- 유럽조사의 경우, 연령차별이 만연하다는 정도가 2008년 52%에서 2009년 58%로 6%p 상승함.
- 유럽조사 분석결과에 의하면 나이가 많을수록 연령차별이 만연하다고 인식함.

〈표 4〉 응답자 연령에 따른 연령차별 인식

(단위: %)

| 연령으로 인한 차별 | 전체 | 연령별 | | | |
|------------|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|
| | | 15~24 | 25~39 | 40~54 | 55+ |
| 만연하다 | 58 | 49 | 56 | 60 | 60 |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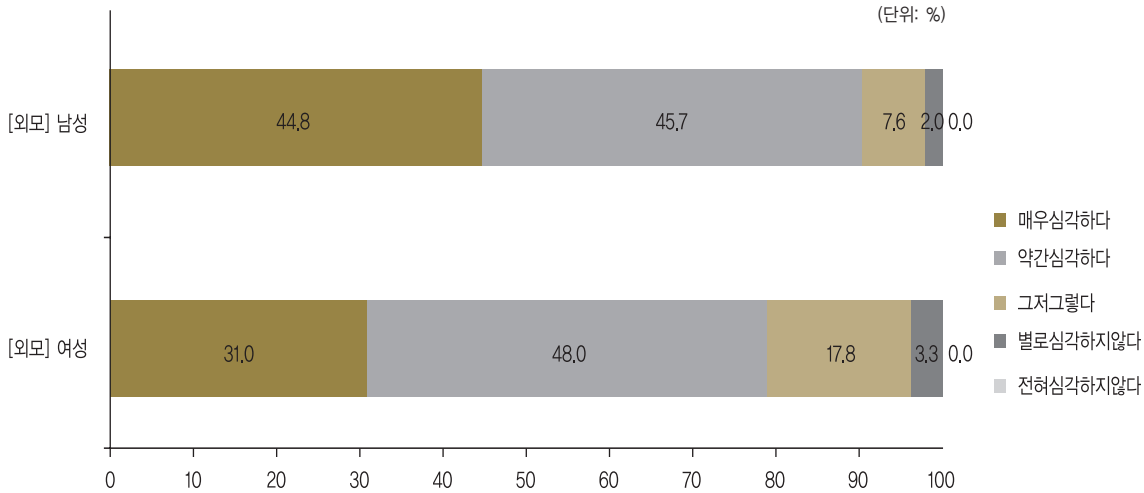
[그림 10] 2011년 성별에 따른 연령차별에 대한 심각도

이슈 #8

외모차별, 한국 특유의 차별 중 하나로 보다 심각해져

☞ 외모차별, 2011년 모든 연령대에서 외모차별 심각도 급증

- 외모차별은 2011년 85.6%로 2004년 61%에 비해 24.6%p 큰 폭으로 증가함.
-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, 남성 79%, 여성 90.5%가 심각하다고 인식해 남성보다 여성이 외모차별에 대한 심각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.
- 2004년에는 젊은 세대인 20대에서 외모차별에 대한 인식이 민감하게 나타난 반면, 2010년에는 전 연령대에서 외모차별 심각도가 높게 나타남.
- 외모차별은 유럽의 차별유형에서는 볼 수 없는 특징으로 한국 특유의 차별 중 하나임.



[그림 11] 2011년 성별에 따른 외모차별에 대한 심각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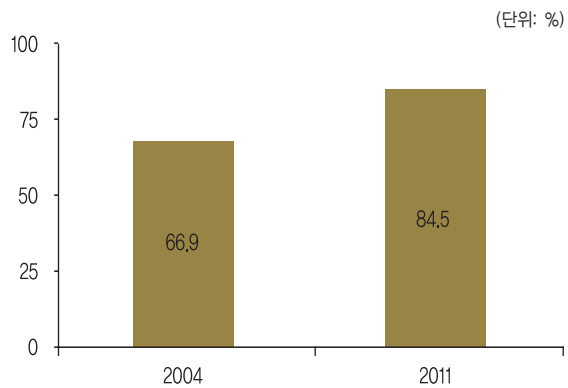
이슈 #9

미혼모차별, 2004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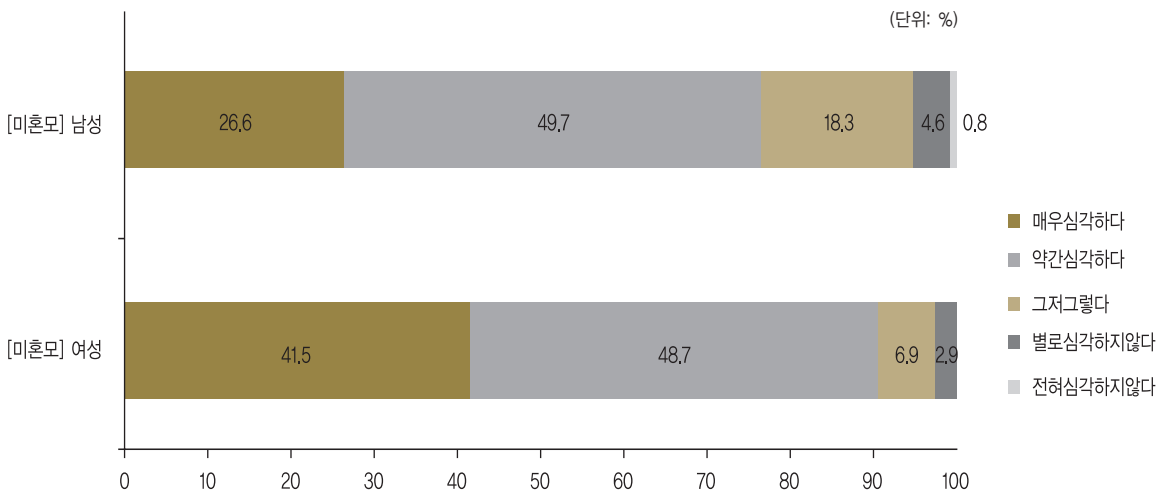
미혼모차별, 한국 특유의 차별로 2004년 대비 17.6%p 상승

- 미혼모차별 심각도 인식은 2011년 84.5%로 2004년 66.9%에 비해 17.6%p 큰 폭으로 상승함.
- 성별에 따라서는 남성 76.3%, 여성 90.2%가 심각하다고 응답해 여성의 비율이 높게 나타남.

- 유로바로미터 조사와 비교시, 미혼모 차별은 한국 특유의 차별임.



[그림 13] 미혼모차별에 대한 심각도 인식(2004, 2011년)



[그림 12] 2011년 성별에 따른 미혼모차별에 대한 심각도

II. 기존차별 및 새로운 유형 차별 개선을 위한 제언

㉮ 차별판단의 구체적인 기준 마련 및 사례 수집과 홍보 강화

- 장애인차별은 정당한 편의시설 제공관련 법 적용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.
- 또한 성 차별과 성희롱 문제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.
- 이 같은 차별유형은 진정 사건의 인용율이 상당히 낮아 차별 판단기준이 되는 '합리적 사유' 혹은 '정당한 사유'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마련, 사례 수집과 홍보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함.
- 베이비부머의 노동시장 퇴직과 함께 고령인구 증가로 고령자차별이 심화될 것으로 보이며, 청년취업난 심화와 갈등문제 심화로 젊은 이에 대한 차별, 정년문제 등이 새로운 이슈로 대두될 것으로 보임.
- 따라서 현행 고용상 연령차별뿐만 아니라 다양한 영역에서 발생하는 연령차별에 대한 적극적 대처가 필요함.

㉮ 우리나라 특유의 차별에 대한 적극적 대처 필요

- 최근 지나친 고등교육열 및 과잉교육, 심각한 학력 간 임금격차, 고학력 실업 등의 사회문제 대두로 국회에서 '학력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'을 발의하여 계류 중임.
- 그러나 동 법은 주로 고용분야의 학력차별에 치우쳐있고, 외모차별, 미혼모차별 등은 이들 문제를 전담하는 행정부처가 없어 정책적으로 예방 및 해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약함.
- 우리 국민 80%이상이 심각하다고 인식하는 학력 및 학벌차별, 외모차별, 미혼모차별 등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함.

㉮ 출신국가 및 인종차별 연구, 사회통합 및 차별예방 정책 수립·시행 필요

- 새터민 및 결혼이민자 관련 출신국가 차별, 인종 및 피부색 관련 차별은 상대적으로 대상집단이 적어 차별 진정건수가 적으나, 향후 이들 집단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.
- 따라서 이 같은 유형의 차별과 관련된 차별 판단기준, 가장 많이 발생하는 차별 영역 등에 대한 연구와 함께 사회통합 및 차별예방 정책 수립·시행이 필요함.

㉮ 미혼모, 동성애 집단 인식 개선 및 차별적인 법 제도 개선 추진

- 차별대상 집단이 적으나 우리 국민들이 상당히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미혼모, 동성애와 관련된 차별에 대한 인식 개선 및 홍보 강화가 필요함.
- 차별적인 법 및 제도 개선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도 함께 요구됨.

㉮ 현행 차별관련 법률과 제도의 종합적 점검 및 정비 필요

- 향후 우리 사회에 다양한 유형의 차별이 대두될 것으로 보임.
- 따라서 차별예방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, 국가인권위원회법, 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,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법,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 및 정비가 필요함.
- 이와 함께 향후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될 것으로 전망되는 차별 유형에 대해서는 관련 행정부처 연계 및 사전 대책 수립이 필요함.